

2025 미래엔 공모전

손글씨 & 창작 글감

응모 기간 2025. 5. 2.~10. 18.



- 참여 대상**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누구나
- 공모 내용**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서 글 한 편을 골라 쓴 손글씨
- 참여 방법** 우편 접수 또는 미래엔 홈페이지>공모전에서 접수
- 보내는 곳** (우편번호 06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 손글씨 공모전 담당자 앞



01 초등학생 글쓰기 분야

- 참여 대상**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누구나
- 주제 선정** 자유 주제
- 공모 부문** ① 동시 ② 기행문 또는 일기 ③ 독후감

02 교과서 창작 글감 분야

- 참여 대상** 선생님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선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글감으로 적합한 글
(2022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참고)

응모 방법 미래엔 홈페이지>공모전에서 접수(업로드 방식)

손글씨 공모전 주최 | (주)미래엔
후원 |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 교과서박물관 / (주)윤디자인

창작글감 공모전 주최 | (주)미래엔
후원 |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 교과서박물관



미래엔 공모전 바로 가기

수상자 발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3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엔 홈페이지 <https://www.mirae-n.com> ▶공모전을 참고 바랍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그리고 유관순



남궁원
서울고등학교
수석교사

202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 독립운동가는 전체 독립운동가 16,932명 중 3.21%에 불과한 544명이 서훈을 받았으며¹⁾,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독립운동가 총 18,258명 중 여성은 664명이다.²⁾ 비율로 따지면 3.63%이다. 일반적인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 절반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3·1 운동 관련 사진 자료, 1910년대~193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 투쟁과 의열 투쟁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분명한 점들을 보면 이에 대한 연구와 정리, 그리고 중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적절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 다행인 점은 최근 여성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활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식은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의 재인식」에서 “독립운동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고 서술하고 “유관순만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일제에 맞서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민족해방의 주체가 된

1) 라미경,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독립정신계승방안: 충북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11집 제4권(2022년 12월 31일)
2)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RewardStat.do?goToCode=10001>)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구하였다.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 운동의 대명사 강주룡,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한 김마리아, 1943년 출범한 한국 애국부인회 등에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 의병장 윤희순을 연구한 심옥주³⁾, 시각 장애인 독립운동가 심영식을 연구한 장영주⁴⁾, 여의사 현덕신을 연구한 이윤옥⁵⁾,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을 연구한 신영숙⁶⁾과 서형실⁷⁾,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활약한 여성을 연구한 김성은⁸⁾, 권애라 열사를 연구한 김판임⁹⁾, 남자현의 항일 투쟁을 연구한 강윤정¹⁰⁾, 만주 조선인 여전사의 활약을 연구한 방미화와 현청하¹¹⁾, 일제강점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특성을 연구한 신영숙¹²⁾,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연구한 라미경¹³⁾, 일제강점기 여성인물사 연구 단행본을 펴낸 박용옥¹⁴⁾ 등이 있다. 또한 유관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이들도 많으며, 위에 모두 열거하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한 저작물들이 많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을 기점으로 의병 항쟁이 불꽃처럼 치열하게 일어났으며, 1910년 한일 강제 병합과 더불어 본격화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독립운동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병 항쟁과 독립운동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해외에서도 줄기차게 전개되며 거족적인 만세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독립운동에는 남녀의 구분도, 신분의 높고 낮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는 1910년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를 자행하여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공서의 관리와 학교의 교원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도록

3) 심옥주, 「여성의병장 윤희순과 유제원의 가족독립운동」
4) 장영주, 「심영식 시각장애인 여성 독립운동, 개성 3.1만세운동을 주도하다」
5) 이윤옥, 「독립운동 크게 밝혀지지 않은 광주 최초 여의사 현덕신」
6) 신영숙,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7) 서형실,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8) 김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1932~1945」
9) 김판임, 「여성 독립운동가 권애라 열사의 생애와 애국활동에 관한 소고」
10) 강윤정,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항일투쟁」
11) 방미화, 현청하,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만주 조선인 여전사의 항일운동」
12) 신영숙,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그 특성 연구』
13) 라미경, 위의 논문
14) 박용옥, 「일제시기 여성인물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박용옥, 『한국 여성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하는 등 혹독한 강압 통치를 하였다. 일제는 헌병 경찰의 강압 통치를 보조하고자 ‘조선 태형령’, ‘범죄즉결례’, ‘경찰범 처벌 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선인에게 적용하였다.

조선 태형령
(중략)
제6조 태형은 태로 불기를 때려 집행한다.
제7조 ①태형은 30태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다시 30태까지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②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중략)……
제13조 이 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한다.¹⁵⁾

일제의 가혹한 통치가 자행되면서 한국인의 저항도 거세졌다. 일제는 저항하는 한국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표 1 — 년도별(年度別) 재감인원(在監人員)¹⁶⁾

年度	區分	年末現在 在監人員	1日平均 在監人員	年度	區分	年末現在 在監人員	1日平均 在監人員
1908		2,019		1927		13,751	13,454
1910		7,021		1928		14,257	14,267
1911		9,599		1929		15,886	14,743
1912		9,581		1930		17,215	16,677
1913		9,914	9,895	1931		17,359	16,988
1914		9,474	9,716	1932		18,864	18,113
1915		9,800	10,316	1933		19,090	18,957
1916		10,869	10,719	1934		17,939	17,879
1917		12,265	11,813	1935		18,414	18,244
1918		11,609	12,249	1936		18,540	18,490
1919		15,161	15,725	1937			19,191
1920		14,428	14,255	1938			19,392
1921		16,695	15,916	1939			19,116
1922		15,091	15,962	1940			18,182
1923		13,709	14,315	1941			19,760
1924		12,825	12,665	1942			20,891
1925		13,106	13,083	1943			23,199
1926		13,963	13,678	1944			21,900

15)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25_0010
16) 양성숙, 「서대문형무소의 개소와 항일의병의 투옥실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위에 제시된 <표1>을 보면, 1910년 감옥에 수감된 인원이 급증했고, 1919년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수감 인원이 급증하였으며, 3·1운동을 계기로 수감 인원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수감자들 중에 여성들도 있고, 우리가 아는 서대문 형무소에는 여자들만을 수용하는 공간인 여옥사가 있었는데, 여옥사의 8호실이 바로 유관순이 갇혔던 공간이라고 한다. 유관순은 오늘날 ‘유관순 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고,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으며, 역사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에 불거진 논란¹⁷⁾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의 인물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의 하나인 유관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유관순은 1902년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서 유증권(부)과 이소제(모) 사이의 딸로 태어났다. 유관순은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어려서부터 개신교를 자연스럽게 접하였다. 지령리 교회를 다녔던 유관순은 1916년에 샤프(A.H. Sharp) 선교사의 추천으로 교비를 지원받아 서울의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였다. 유관순은 1919년 3월 보통과를 졸업하고 4월에 고등과에 진학하였다. 유관순은 친구들과 더불어 이화학당 근처에 위치한 정동제일교회 신자였다. 1919년은 벽두부터 국내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 파리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평화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19년 1월 고종이 서거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유관순은 만세 운동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고 만세 운동을 준비하였으며, 정동제일교회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정동제일교회 목사였던 이필주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 유관순은 기숙사를 나와 친구들과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3월 5일에 남대문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일제가 3월 10일 휴교령을 내리자 13일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갔다.

유관순은 아버지 유증권에게 서울에서의 만세 운동 관련 소식을 전하고,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내놓았다. 이후 유관순은 사촌 언니 등과 함께 태극기를 비밀리에 만들었으

17) “유관순, 교과서 執筆기준에 놓여야”.. “과도한 간섭”(https://v.daum.net/v/20140901030307855)
유관순 누락논란, 교과서 절반에서 실종 “이유는?”(https://v.daum.net/v/20140831172206371)

며, 인근 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돌아다니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운동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3월 31일에 아우내 매봉산에 올라 햇불을 지펴 4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이 있음을 알렸다. 4월 1일 병천 시장에서 아버지 유중권, 숙부 유중무 등과 함께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이날 사상자가 40여 명 이상 발생하였다.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날 순국하였다. 유관순은 주모자로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 수감되었으며¹⁸⁾, 5월 공주 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받았다. 유관순은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함께 경성복심 법원으로 넘겨져 3년형을 받았으며, 서대문 감옥¹⁹⁾[지금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수감되었다. 1920년 3월 1일에는 옥중 만세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근에 유관순이 복역했던 8호실에서 만들어져 불렸다는 노래가사가 밝혀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성 독립 운동가의 한 사람이었던 심영식이 그의 아들에게 전하였고, 그의 아들(문수일)이 이를 기록하였다가 세상에 알린 것이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²⁰⁾

당시 유관순과 함께 서대문 감옥 여옥사 8호실에 갇혔던 이들은 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심영식, 임명애, 어윤희, 노순경 등이다. 이들은 그 좁은 감옥에서 영하와 흑한의 추운 겨울, 무덥고 습한 한여름을 견디면서 동지애로 뭉쳤고, 배고픔과 일제의 고문을 견디며 살았다. 이들이 주도한 옥중 만세 운동에 일제의 탄압과 고문은 더욱 거세졌고,

18) 일제는 1908년 경성 감옥을 개소하면서 전국의 주요 지역에 감옥을 만들었다. 이는 의병 운동을 탄압하고, 관련자들을 수감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으며, 1923년에는 감옥이라는 명칭을 형무소로 변경하였다. 공주 감옥이 공주 형무소가 되었다. 일제는 1909년 이른바 기육각서 체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장악하였다.

19) 일제는 1912년 지금의 마포구 공덕동에 신축 옥사를 지어 이전하였으며, 1908~1912년 존속한 경성 감옥을 서대문 감옥으로 변경하였다.

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51643319488>

1920년 9월 유관순은 순국하고 말았다. 서대문 감옥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자 이화학당의 교장 월터(Jeanette Walter)의 노력으로 시신이 인도되었고, 10월 14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김중우 목사의 집례로 장례를 치르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1935년~1936년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유관순의 묘는 망우리로 이장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태원 공동묘지에 묘비 없이 묻혀 있다가 일제가 많은 분묘를 한꺼번에 화장하여 합장하였기 때문이다²¹⁾. 망우리 공원에는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가 있으며²²⁾, 고향인 충남 천안시 매봉산 자락에 초혼묘가 봉안되어 있다.

유관순 관련 사업으로 1947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고, 1951년에 순국의 열사 심사위원회에서 순국의 열사로 선정되었다. 1962년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2019년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모교였던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유관순 기념관이 준공되었고, 1996년에 명예졸업장이 추서되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었다. 독립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1919년 3월에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렁찬 함성으로 일어났으며, 만주와 연해주를 물론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개되었다.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린 것이다. 제암리 만행과 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개되었으며, 이후 독립운동은 외교론, 실력양성론, 그리고 무장투쟁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독립운동의 주체는 선각적 지식인과 학생에서 노동자 농민으로 옮겨져 1920~30년대 국내에서는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암태도 소작 쟁의,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1930년대 만주에서는 지청천과 양세봉이 주도하는 한중 연합 작전이 전개되었으며,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예하에 한국광복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함은 물론, 멀리 미얀마·인도 전선에서 연합국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개된 독립운동에 남녀가 따로일 수는 없었다.

2025년 3월부터 사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과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역사

21) 「유관순 열사의 무덤은 왜 찾을 수 없을까?」(<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98000>)

22) <https://www.minjok.or.kr/archives/139992>

교과서에서는 여성사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이후 독립운동에서 여성들의 활약을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illegible]

〈 동아출판, 24p 〉

〈 동아출판, 33p 〉

소녀회 | 1928년 11월 초 광주 여자 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소녀회를** 조직하였다. **소녀회** 회원들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30년 1월에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백지 동맹 사건을 벌여 검거되었다.



검거된
소녀회 회원들 ▶
(『동아일보』,
1930. 9. 30.)

〈 동아출판, 39p 〉

2

3·1 운동



학습 목표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3·1 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 산천이 돌아고 바다가 끓는다
예헤이 데헤이 예헤이 데헤이 /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번 병의 노래

이 노래는 3·1 운동 때 체포된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불렀다고 한다.

▶ '대한이 살았다'는 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 서대문 형무소서를 서대문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된 유관순

〈지학사, 36p〉

여성 독립운동가		
일본의 제국에서 만년 다양한 계층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도 적지 않았다. 대표로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아보자.	 한영근	 홍선
한영근은 청년시대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국적 관심을 기울였으며 1906년에 대한 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후 독립운동 선진 단체에서 활동하며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을 위한 교육 운동을 헌신하였다.	 홍선	 홍선
한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근교군 포항 등을 돌아다니며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여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4월 10일에 대한 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후 후방운동에 헌신하였다.	 남미라	 남미라

〈지학사, 68p〉

〈 비상교육, 53p 〉

16

사 남애 아해(아이들아)
애(아이를)를 완강히 말고 사치 계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문을 통행하라.
네 애이는 과도하 신강하로.
그 온영의 줄에 의탁된 자였사나리.

39

17

조선 어사(어학)는 지금 무엇보다도
작업적 교육이 필요하고도 생각파라.
부단 행방이니 가장 개량이 하나니라.
다 제 손으로 제 법을 잘기 전에는
해방이 아니 될 것임이.

18

나혜석 >

사람화가, 시인, 소설가, 활동
가요가, 또한 여성 운동가로서 남
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여 자유 연
애와 자유 결혼을 주장하였다.

19

< 저자이다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근대
학문을 배웠다. 귀국 후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壇 퇴장과 계몽 운동을
진행하였다.

〈 비상교육, 55p 〉

3·1 운동에 참여한 여성, 윤형숙

광주 수피아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은 앞장서서 만세를 부른다 일본 헌병이 내려친 칼에 왼쪽 팔이 잘렸다. 그러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집어 들고 끝까지 만세를 불러 진압하던 일본군을 놀라게 하였다. 윤형숙은 이날 만세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 동상
(광주 수피아여자고등학교 교내)



〈 씨마스, 33p 〉



▲ 올밀대 위에서 농성을 벌이는 강주릉 1931년 평양 고무 공장 파업에서 여성 노동자 강주릉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항의하여 올밀대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 씨마스, 48p 〉



경성 여자 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 시위

〈 천재교육, 32p 〉

〈 천재교육, 58p 〉

정경호, 임시 정부의 살림을 도왔다



정경호는 사후배지의 남편을 따라 임시 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는 중국과 국공합작 이후 독립 운동 자금을 모으기엔 역할을 맡았다. 일본과의 상하이 침략으로 임시 정부가 난징에 패배를 내는 임시 정부의 살림을 도왔다. 이후 정경호는 대한 독립운동 관련부서를 역임했다. 그는 국내의 여러 여성들을 각성과 협력을 촉구하며 임시 정부를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도 활동했다.

정경호
(1900~1990)



〈 천재교육, 65p 〉

자료실

국립현대미술관 [www.museum.go.kr](#)

3·1 운동 속 여학생들의 이야기

세계各地的 사람들이 모두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 한국 인민의 남녀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받은 억압을 밝히는 동시에 독립을 호소합니다.

-한국의 여학생들이 독립 회합 회의에 보낸 서문, 1919. 3. 10.-

○ 유원순의 사촌형 형무소 수감 생활표

한인식 만필본

파괴 한이식은 좋은 친한 학교 평행학교 학생으로 독립 운동을 공로하고 3월 20일 학생 48명을 탄압하러 양정리 시장에 이르러 국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을 외쳤다.

-공주 지방 법, 1919. 4. 28.-

3·1 운동 당시 많은 여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일제의 살인한 감시 속에서 파괴 강회와 학생자리에 한국 의복을 입고 자라는 나이의 큰 꿈을 적어놓은 여성들은 이들을 자신들 '한국여학생'이라고 밝혔다. 이후 학생 그룹과 1학년이었던 유준호는 민선에서 연세대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원순조 수감되었던 한이식은 표과 3남매가 있는 여학생이었다. 민선이 어머니에게 황금송이 민선을 위해 장비를 함께 한때의 여학생이었다. 그러나 다시 일본으로부터 해방국을 잡으려고 하고 독립 운동을 했다. 특히 독립 운동가로서 인정받았다.

3·1 운동을 거대한 시련 속에서 겪어야 하는 자리가 높아졌다. 이때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이 늘고, 여성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 미래엔, 24p 〉

생각 넓히기 독립운동가 가족의 삶

[자료 ①] 이화영의 아내 이은숙

일제의 탄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그들의 아내였다. 이은숙은 남편 이화영을 따라 만주, 대일몽으로 계속 옮겨 다녔어야 했고, 독립운동가들의 공장에 나가거나 산보나 산책, 생활복을 새 생활복으로 바꿔주는 공장을 마련하였다. 나 중에는 독립운동으로 제모인 아들 이규환의 옥까지까지 하였다.

[자료 ②] 김동삼의 아내, 김복부

“30대의 나이로 고종에서 남편과 같이러 시아미남은 아들 형제를 데리고 와서도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려 본 적이 없었다. 시아미남에서 직접 행랑거로 광복을 구한 희복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던 그 숙내는 시아미남 뭇도 다 알고 생각된다.”

-김복부의 며느리 이복숙의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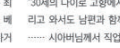
→ 이복숙의 만주 생활은 사실상 김동삼의 간도 함면 때 피상산의 일고로 인한 시아미남 정변, 시아미남과 아버지의 고국으로 인한 연이였다. 특히 시아미남은 평생 단 세 번만 만날 수 있었고 또한 77년 만에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 이화영



▲ 이화영의 아내 이은숙



김동삼의 아내의 이복숙

김동삼의 가족 사진

〈 리베르스쿨, 33p 〉

[illegible]

〈 리베르스쿨, 36p 〉



〈해냄에듀, 12p〉



〈해냄에듀, 14p〉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를 서술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3·1 운동에서 여성의 활약, 둘째 노동 운동을 포함한 대중운동에서 여성의 활약, 그리고 셋째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포함한 국외 독립운동에서의 여성의 활약을 서술하고 있다. 거족적 만세 운동인 3·1 운동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대단하였으며, 학교의 학생만이 아니라 수원 지역의 기생들도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의 하나인 유관순은 1945년 이후 열사로 추앙받으며 민족 독립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선 인물이다. 유관순은 3·1 운동과 관련하여 저항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유관순이 이런 아이콘으로 부각되는 과정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표상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유관순은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관순을 떠올리는 것은 비단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전개한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한 필연적 기제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서 독립운동사를 수업하고 가르치는 것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만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오늘이 어제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오늘이 내일의 발로임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위함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일의 우리 삶을 위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참고 문헌

- 이준식(2015).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의 재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59, 86-102.
- 박용옥(2004). 일제시기 여성인물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창간호, 175-190.
- 박용옥(2006). 류관순열사의 3·1만세시위운동과 옥중투쟁. 한국인물사연구, 6, 331-362.
- 진경년(2009). 잔 다르크와 유관순의 비교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4-116.
- 최병택(2022).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유관순 이미지와 그 개선의 필요성. 역사와 담론, 제102집, 89-117.
- 신광철(1999). 유관순의 신앙과 3·1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36호, 3-12.
- 류제한(1990). 외설 선생과 류관순. 나라사랑, 제74집, 37-39.
- 김주희(2020). 소녀들의 대항기억, 유관순의 귀환(鬼還). 역사연구, 38호, 11-49.
- 이화진(2020). 3·1운동 100주년의 역사영화와 여성—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과 〈항거:유관순 이야기〉. 역사비평, 130, 52-79.
- 최현식(2019). 유관순을 호명하는 몇몇 시선과 목소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0(1), 37-117.
- 김정인(2018). 3·1 운동, 죽음과 희생의 민족서사. 정신문화연구, 41(4), 105-131
- 교과서(김구 관련 서술 내용,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사용 한국사 교과서)
 - 노대환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동아출판, pp. 10~11, 24, 33, 39, 46, 60, 66.
 - 송호정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지학사, pp. 36, 50, 68.
 - 도면희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비상교육, pp. 53, 55, 71.
 - 신주백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씨마스, pp. 33, 48, 61.
 - 정요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천재교육, pp. 29, 31-32, 40, 58, 62, 65.
 - 강승호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미래엔, pp. 24, 29p.
 - 김보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리베르스쿨, pp. 9, 33-34, 36, 57-58.
 - 조한경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해냄에듀, pp. 12, 14-15, 38,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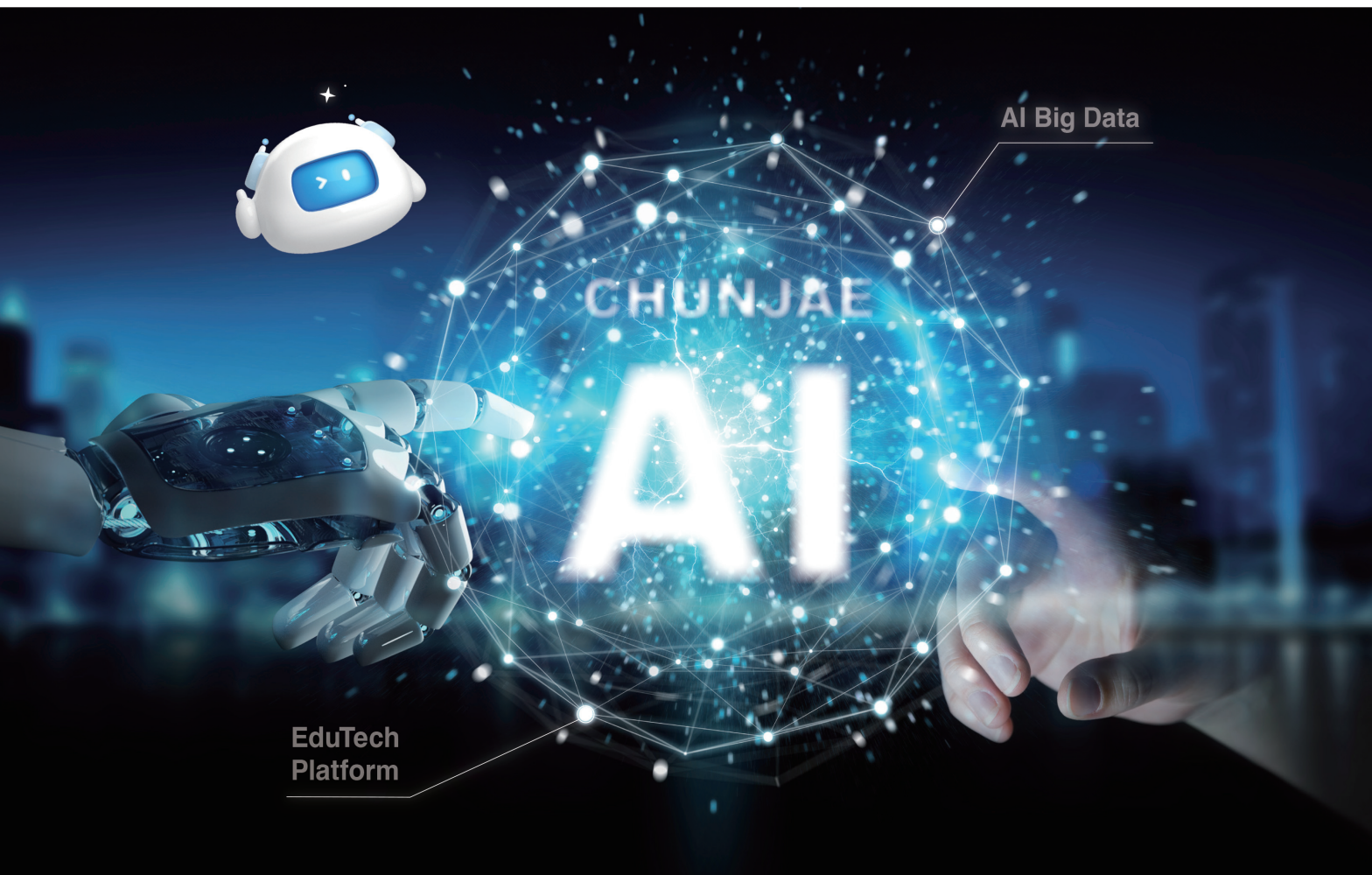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 골목길 인문학과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에듀테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천재교과서

AI가 추천하는 나를 위한 맞춤 학습!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트렌드 분석!
에듀테크가 펼치는 학습 현장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천재교과서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